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실무TF' 본격 가동

1차 전체회의 개최...70여명 참석 추진경과 공유·세부 실행과제 논의 내달 교육부 승인·내년 신입생 입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확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 중인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가 통합실무TF를 본격 가동하고, 실행 중심의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1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전남 조선간호대 제3교사 종합임상컨퍼런스룸에서 양 대학의 통합 추진을 위한 '통합실무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양 대학은 2023년 5월 통합 협약을 체결한 이후 통합에 따른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회의는 양 대학 주요 보직자와 분야별 실무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실무TF팀을 구성하고 통합 방향·세부 실행 과제를 논의하며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학 통합 추진 경과 공유 ▲분야별 TF팀 구성 및 역할 소개 ▲통합 실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명 ▲주요 실행 과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는 이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인 실무TF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 절차는 다음 달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대학은 2027학년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이번 통합실무TF 전체회의는 양 대학 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양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은 "양 대학의 강점을 합쳐 보건 의료 특성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계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통합을 통해 호남 지역의 명실상부한 보건 의료 허브대학으로 거듭나고 보건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타 학과의 벽을 허무는 융복합 교육과 평생 교육을 확대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선욱 기자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 100명 모집 SNS 콘텐츠 제작 등...내달 발대식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자치경찰 치안 활동을 함께할 '2026년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는 SNS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와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는 홍보단이다. 개인이나 팀 단위로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도민이나 전남에 있는 대학의 재(후)학생이다.

자치경찰 파트너스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자치경찰 치안 현장 체험·취재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확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다.

선발된 파트너스에게는 위촉장과 기념품이 지급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과 자치경찰위원장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시원 기자



나무심기 좋은날...전시판매장 '북적' 19일 광주 광산구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나무전시판매장에서 손님들이 각종 묘목을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판매장은 오는 5월까지 운영되며, 유실수·조경수·정원수목·잔디 등 200여종 16만5천여그루가 전시·판매된다. /조영권 기자

“옛 전남도청 운영 주체 5월 전 결정해야”

범시민대책위 “독립 국가기관으로” 문체부에 촉구...“市도 입장 밝혀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옛 전남도청 운영 주체 결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

도청은 오월 항쟁 중심지이자 오월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며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그에 걸맞은 정부조직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소속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본래 취지와 다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개관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임시조직이 옛 전남도청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원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의 주체로서도 입장을 명확히 하고 5월이 오기 전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주체인 광주시도 복원 과정에서 있었던 속의 과정을 복기하며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염원하며 도청으로 모인 대학생·시민들이 민족민주대성회를 연 항쟁의 산실이다.

또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시민군이 상항실을 차렸으며, 5월27일 계엄군 최후진입 당시 마지막까지 분투한 5·18대표 사적지다.

전남도청이 2006년 무안군으로 이전한 뒤 비어있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으로 별관 일부가 활용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2023년 10월 원형 복원 공사에 착공, 최근 마무리가 지난달 28일부터 임시 개방해 시범 운영 중이다.

복원추진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전시 환경과 해설 방식, 관람 동선 등을 보완해 오는 5월 정식 개관한다. /이연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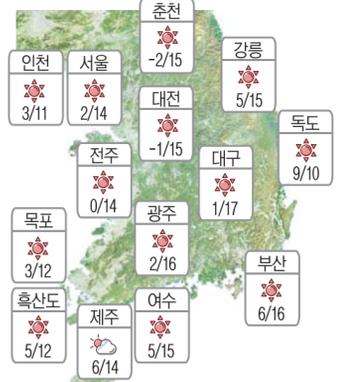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7 해질 18:44 🌧달름 06:59 달짐 20:12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2/16	장성	맑음	-1/15
목포	맑음	3/12	보성	맑음	0/15
여수	맑음	5/15	함평	맑음	-1/13
나주	맑음	-1/15	순천	맑음	2/16
완도	맑음	3/15	영광	맑음	-1/13
구례	맑음	0/16	진도	맑음	2/12
강진	맑음	0/15	흑산도	맑음	5/12
해남	맑음	-1/14	고흥	맑음	2/16
광양	맑음	4/16	담양	맑음	-1/1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0.5
남부	면바다(북) 0.5-1.5	0.5-1.0
	면바다(남) 0.5-1.5	0.5-1.0
남해	앞바다 0.5-1.0	0.5-0.5
	면바다(동) 0.5-1.5	0.5-1.0
서부	면바다(서) 0.5-1.5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57	08:13	10:03	03:42	10:40	04:45
	15:15	20:31	여수	22:22	16:02	23:00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21일(토)	22일(일)	23일(월)
☀(3/18) 맑음	☀(5/17) 구름조금	☀(5/18) 맑음
24일(화)	25일(수)	26일(목)
☀(7/15) 구름조금	☀(7/18) 구름조금	☀(5/18)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365일 동화같은 즐거움! 봉선동화시장으로 오세요!

봉선시장의 이모저모

<동화적 즐거움이 있는 시장>

<지역과 함께하는 봉선시장>



새로워진 봉선시장 게이트



어린이 전통시장방문 프로그램



봉선동화축제 퍼레이드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경) 봉선동화시장 '대통령상' 수상



사람의 김장나눔축제



나눔물품 기부

흥이 나고 부자되는 상인, 놀이가 있는 부담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봉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남구

광고문의 : 062)650-2099